

착용자 인상효과의 시간적 안정성 - 의복범주, 의복의 유행성, 착용자의 체형변인을 중심으로 -

김희숙 · 김재숙*

충남대학교 의류학과

의복과 관련한 인상형성에 관한 연구는 많이 이루어져 왔으나 시간적 안정성을 기초로 한 연구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S. J. Lennon은 실험자극물의 신체적 매력과 피험자와의 태도 유사성을 측정하기 위해 실험자극물의 나이, 체형을 독립변인으로 하여 1988년에는 대학생을 피험자로 측정하였고, 1997년에는 중년여성을 대상으로 측정하였다. 그 결과 10년이라는 시간적 안정성에서 신체적 매력에 영향을 주는 변인은 나이가 젊을수록, 체형은 사이즈가 6일 때 가장 매력적으로 나타난다는 일관성을 찾아냈다. 그러나 태도 유사성은 시간적 안정성에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본인의 1991년과 동일한 피험자인 대학생을 대상으로 9년이라는 시간적 안정성에서 착용자의 인상효과에 영향을 주는 변인을 찾고자 시도하였다. 본 연구의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착용자의 인상효과에서 시간적 안정성을 기초로 의복범주, 유행성차원, 착용자의 체형에 따른 영향을 조사하여 일관성 있는 변인을 찾고,

둘째, 이로써 착용자의 인상효과에 대한 범주화 이론을 재규명해 보고자 하였다.

이 연구를 위한 자극물은 1991년의 측정과 같은 조건으로 설계, 제작하였고, 단 유행의복에 대해서는 현재 유행하고 있는 의복으로 제작하였다. 형용사쌍도 1991년의 측정항목과 동일한 문항으로 하였다.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시간적 안정성에서 의복범주, 의복유행성, 착용자의 체형은 평가적차원, 외모적 차원, 호오차원에서 유의한 효과가 있었다. 둘째, 평가적 차원에서 한복 착용자와 크라식의복 착용자는 서양의복 착용자와 유행의복 착용자 보다 더 긍정적인 인상효과가 있었다. 이 결과는 1991년의 연구결과와 일치한다. 셋째, 외모적 차원에서 정상체형의 착용자는 비만체형의 착용자 보다 더 긍정적인 인상효과가 있었다. 이 결과는 1991년의 연구결과와 일치한다. 넷째, 호오차원에서 한복 착용자는 서양의복 착용자 보다 더 긍정적인 인상효과가 있었다. 이 결과는 1991년의 연구결과와 일치한다.

위와 같은 결과들을 볼 때, 시간적 안정성에 있어서 의복범주, 의복유행성, 착용자의 체형 변인은 대인지각과정에서 일관성있게 영향을 미치는 변인임이 재규명되었다. 이 같은 일관성은 대인지각과정에서 그 사람의 문화적 경험이 지각에 영향을 미친다는 McCracken의 이론을 다시

한번 지지하였고, 지각자는 대인지각과정에서 사용하는 일관성 있는 범주전형을 소유하고 있는 것이 증명되었다. 이로써 다시 한번 범주화 이론을 지지하였다.

핵심단어 : 시간적 안정성, 의복범주, 의복유형성, 착용자의 체형, 범주화